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제745호

축하합니다!



2018년 OKBA 장학금 수여식(Feb. 23, 2018)



*2018년 1월 18일 현재

THE BIG \$PI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7년 9월 4일에 출시된 이후 **13명의** 당첨자가
\$262만 5천의 BIG SPIN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olg.ca 에서 스펀
실황 중계를 시청하십시오!

THE BIG SPIN에 대한 지원은 매장 내
 POS 및 TV 광고를 통해 3월에도 계속됩니다.



ST. CATHARINES의 MEGAN
\$400,000 당첨자



CAMBRIDGE의 JUSTIN
\$250,000 당첨자



SUPER DRAW

2018년 3월 31일

보장된 **\$100,000** 상금 25개

+ 1등상 및

보장된 **\$1,000,000** 상금

복권 서명 - 왜 중요한가

복권 서명 요청은 복권의 소유권을 설정해주며, 이는 곧 고객을 보호해줍니다.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그 복권이 큰 상금에 당첨되었을 때 OLG는 복권의 서명으로 적법한 소유자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객은 이름을 인쇄체로 쓰거나 자기만의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인쇄체로 대신 써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면서 최근의 몇몇 고객 당첨금 복권 게임에서 실패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이 바쁠 때는 직원이 복권 서명을 요청하거나 인증된 복권 또는 영수증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증 요건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거듭 일깨워주십시오!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Design and Productio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관련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C O N T E N T S

04 | 2018년 장학의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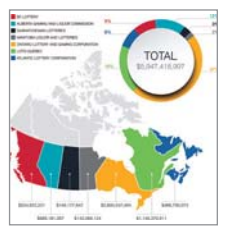
05 | 美, 담배구입 연령 21세 상향 봇물



06~07 | 冬將軍의 계절을 매출 증대 기회로



08~09 | 캐나다 전국 편의점 현황(연재2)



10~11 | 편의점 업주들이 예측해본 2018 트렌드



12~13 | 라스베가스 담배산업 박람회 이모저모
동포비즈니스 관계자 간담회



14~15 | B.C주 오크베이 커뮤니티의 자부심
사푸토 우유 가격 인상



16 | 신규건물 매입 본 궤도 올라

17 | CONVENIENCE U CARWACS SHOW
OKBA회원을 위한 무료 세미나



18~19 | 교양 상식: 童心 파괴 게임 『조선 쌍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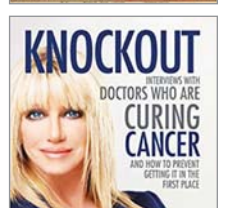
20 | Sunny의 건강 이야기(7)
암(癌) - 1



21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2 | Directory



[부모님들과 함께 화기애애] 2018년 장학의날 행사



▲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고 참석자 모두 합동 기념촬영을 했다.



▲ 장학생 대표로 답사를 하고 있는 고연주 학생

협회 회원의 대학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녀들을 격려하고 학업 성취를 고무하기 위해 매년 치러지는 '장학의 날' 행사 2018년 수상식이 지난 2월 23일(금) 오후 1시에 본부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6명의 수상자 중 이날 학생 본인이 직접 참가한 10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등 30여 명이 모여 화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장학분과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 회장이 격려사를 통해 학생과 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대해 학생 대표로 맥매스터 대학 지리 환경학과에 재학 중인 고연주(Gloria Ko)학생이 답사를 했다. 답사에 앞서 김정렬 장학분과위원장으로 부터 간략히 장학생 선정 경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형태 부회장의 호명에 따라 학생들이 나와 신 회장과 이성호 이사장으로부터 꽃다발을 곁들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았고 개별 기념촬영을 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학생과 부모 그리고 협회측 임원들이 합동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후 자녀들과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서로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네는 등 네트워크 시간을 즐기기도 있다.

협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간단한 다과를 마련했으며 행사를 모두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인근 한식당으로 이동해 늦은 점식을 들며 정담을 이었다.

금년 장학금 수여자 16명의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다음과 같다
(고연주, 고윤철, 김가원, 김주영, 남운호, 백인표, 신지용, 유민지, 유성완, 이예지, 이운수, 이은애, 이종수, 정다운, 정제익, 홍다솔) 이들에게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5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이날 행사에 직접 참가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100달러가 지급됐다. ■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Walter Roberts Ins.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 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Tel (905)764-8061 / Fax (905)764-8066

ohjc@walterrobertsinsurance.com

캐나다 따라할라 은근히 엄려 美, 담배구입 연령 21세 상향 봇물



▲ 일리노이 주 레이크카운티의 한 편의점. 이미 조례로 담배구입 최저 연령을 21세로 올려 시행중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가 지난 2월 6일 담배구입 최저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상원 공중보건위원회는 표결에 부쳐 6대 2로 가결시켰다. 상향된 연령은 일반 담배만이 아니라 시가, 무연담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비롯한 베이퍼 제품 등 모든 담배에 적용된다.

법안 통과 소식에 전미폐암협회 일리노이 지부 보건홍보담당 이사 크리스티나 해밀턴씨는 "미성년자들의 나쁜 습관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크게 반겼다. 그녀는 "상습 흡연자들의 95%가 21세 미만의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상습 흡연자 양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이 상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반대자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편의점과 같은 소자영업자의 비즈니스 위축이 큰 문제다.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편의점도 담배매출은 전체 매출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담배 매상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통과된 법은 21세 미만의 손님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때 2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법이 판매자에게만 벌금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

(16면에 계속)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Internet & Phoneline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OTC제품/목캔디,
연중 팔리는 충동구매 유발 품목

冬將軍의 계절을 매출 증대 기회로



▲ 기침감기 상비약과 목캔디류를 잘 진열해놓은 편의점의 모습

올해는 동장군(冬將軍)이 유난히 기세를 떨치며 감기 환자가 넘쳐났다. 독감 주시를 맞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국도 평창 올림픽을 맞은 해인데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노약자 사망 사건도 심심치않게 뉴스를 탔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곳곳이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빈번했다.

편의점 입장에서 겨울이 유별을 떨면 어떤 영업 전략을 세워야 할까. 최근의 질병통제센터 자료를 보니 캐나다 국민의 1/3이 두통, 코막힘, 후두염, 기침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통의 대부분은 감기를 동반한다. 연방 보건부는 일반 감기를 막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나 말거나 감기가 걸리면 약을 사먹는다.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OTC약이다. 이런 약을 사먹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는 채널이 바로 편의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이 안 좋거나 코막힘 또는 콧물이 흐를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편의점이라고 하니 편의점 업계에서 팔리는 이와 관련된 상비약 매출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 상비약을 비롯한 식료품 수입 및 공급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TFB & Associates'사 마케팅 매니저 블라 파파다코스씨의 말을 들어 보자. “편의점 구매의 상당량이 충동구매에 의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맛이나 향 그리고 디자인을 잘 따져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동구매로 인한 매출의 결과가 달라진다. 가정 상비약 역시 이 이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품목군이다. 제품믹스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참고로 위의 TFB & Associates는 인후염용 정제 캔디의 대명사인 피셔 맨스프랜드(Fisherman's Friend)를 수입 공급하는 캐나다 독점 판매권을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교통사고, 개인 상해</div>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교통위반 티켓</div>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div style="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형법</div>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가정법	▶ 이민법	▶ 민사 소송
▶ 소액재판	▶ 세권, 세입자 분쟁	▶ 주류 판매법
▶ 복권 판매법	▶ 담배 판매법	▶ 보건 위생법
▶ O.D.S.P. 신청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 회사 설립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법무사 : Adam K.H. Yoo, George Gadsdon, Mark Ginz,
 Narae Han, David Song, Hassanein Bhaloo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0-1018 Finch Ave. West, Toronto

가지고 있으며 본사는 온타리오 마카에 소재한다. 국내에서 기침감기와 관련해 편의점 채널을 통한 OTC 약의 총 매출은 9백여 만 달러이며 이는 국내 전체 감기약 매출액의 13%를 차지한다. 파파다코스씨는 현재의 매출액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 가장 이상적 채널임을 강조하고 있다.

감기나 콧물과 관련한 바이러스는 200종류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코 대수롭지 않게 볼 현상이 아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환경은 시장의 계절 특수(特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무난한 겨울철에도 목 캔디가 잘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올해처럼 강추위가 동반되는 겨울에는 이들 OTC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오랜 세월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로 명백하다.

그런데 강풍의 겨울이든 말았던 편의점 업주는 OTC상비약 판매가 연중 이어지는 효과 상품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겨울에 이 제품군이 많이 팔린다는 것 뿐이지 여타 계절에는 취급을 등한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몬텔레즈 캐나다의 소비자 분석 담당 매니저 다이앤 쉴즈는 편의점에서 피크 시즌에 이들 상비약의 상품기획을 잘 해놓으면 다른 아이템까지 추가로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크로스 셀링(cross selling)에 매우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가정 상비약의 구성맞추기 특히 겨울철에 종류를 확대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손님 장바구니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몬텔레즈는 홀스(Halls)와 같은 진해정(cough drop) 브랜드를 많이 생산 공급하는 회사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들 목캔디를 비롯한 가정 상비약은 별도의 색선을

할당해 모아서 진열해놓아야 한다. 손님이 빨리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별도의 코너는 오렌지 주스, 비타민 생수, 스포츠 음료 등이 진열된 코너에 바로 이웃하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 유발에 안성맞춤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기침 해소를 위해 상비약을 구입하는 것이 주 목적인 손님이라 하더라도 입안이 마르거나 가슴이 답답해 영양 음료를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공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정 상비약 매출 증진에 있어 진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 요인이다. 손님의 시계(visibility)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많은 편의점들이 상비약을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 뒤쪽에 구색이나 맞추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진열해놓는데 거의 방치 수준이다. 특히 겨울철에 충동적으로 목캔디류를 많이 사먹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진열에 더 신경을 쓰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끝으로 통계를 통해 편의점이 가정 상비약 매출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본다. 닐슨이 지난 11월 25일을 기준으로 이전 52주의 기침감기 관련 제품 매출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채널의 판매는 2.2% 증가한 반면 식품점, 약국, 대형 수퍼를 통한 매출은 9.2%나 증가했다. 기침감기가 유행하지 않는 비수기(4월~8월)의 편의점 매출은 6.8%가 증대했다. 이 두가지 통계는 성수기때 편의점이 더 분발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쟁 채널에 비해 매출 증가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수기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니 업주들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1 Debit & ATM 서비스

1 SOLUTIONS

DATA CORPORATION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고객이 원하는 고급 맞춤형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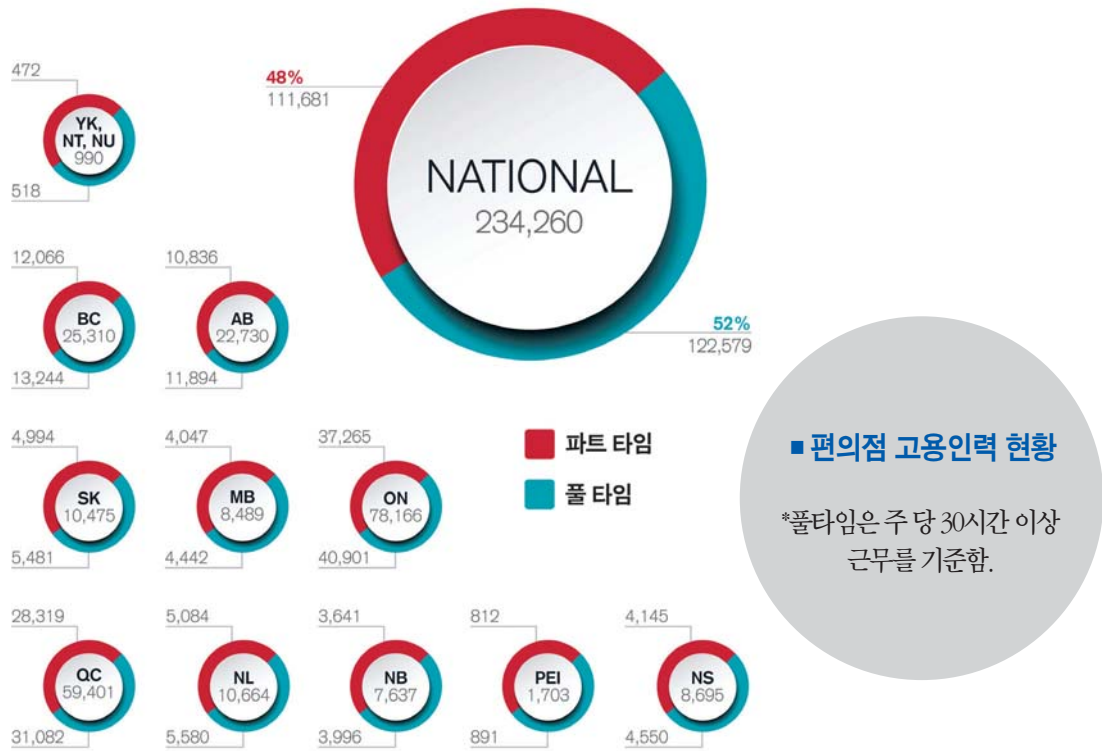
- **데빗카드 수수료 - 3.69 cents / transaction**
(Tap : extra 2 cents)
- **Rental Fee - \$30**
- **크레딧카드 - Visa, Master Card / Discover 수수료 1.55%**
- **No statement fee (무료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any hidden charges**
- **Signing bonus \$300**
- **No Contract**
- **장비 문제발생시 - 캐나다 전지역 4-6 시간내 방문 교체 (365일 서비스)**
- **Help desk 운영 24 / 7 365 days**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www.1solutions.ca / email : mateo@1solutions.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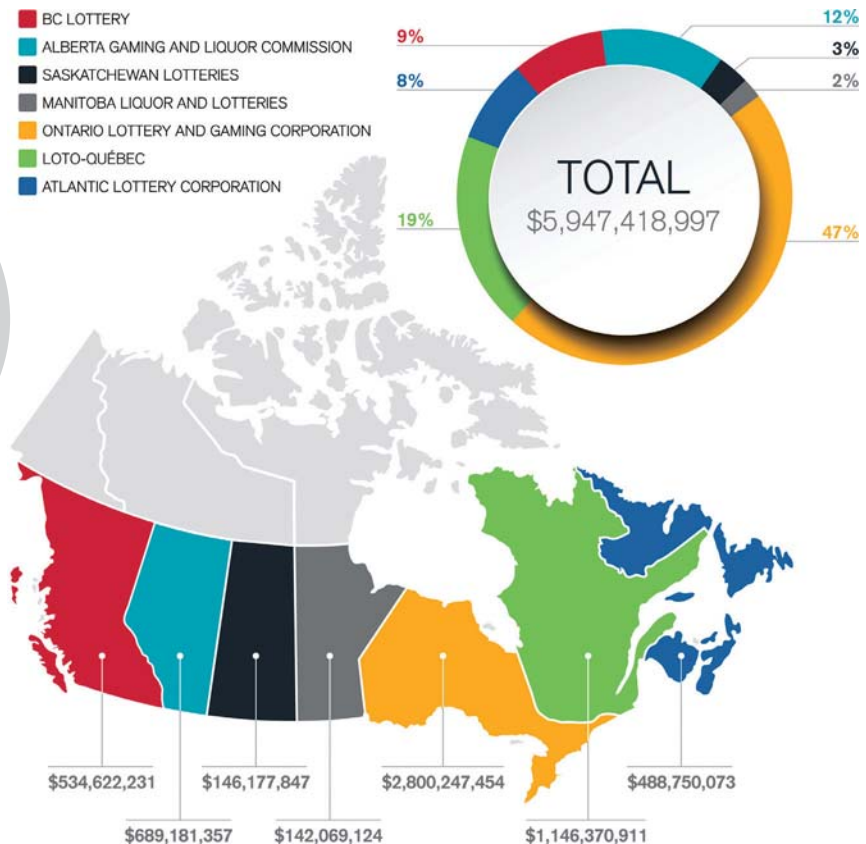
Tel 1.888.554.7355 / Direct 905.962.1999 / Fax 1.888.554.0409

캐나다 전국 편의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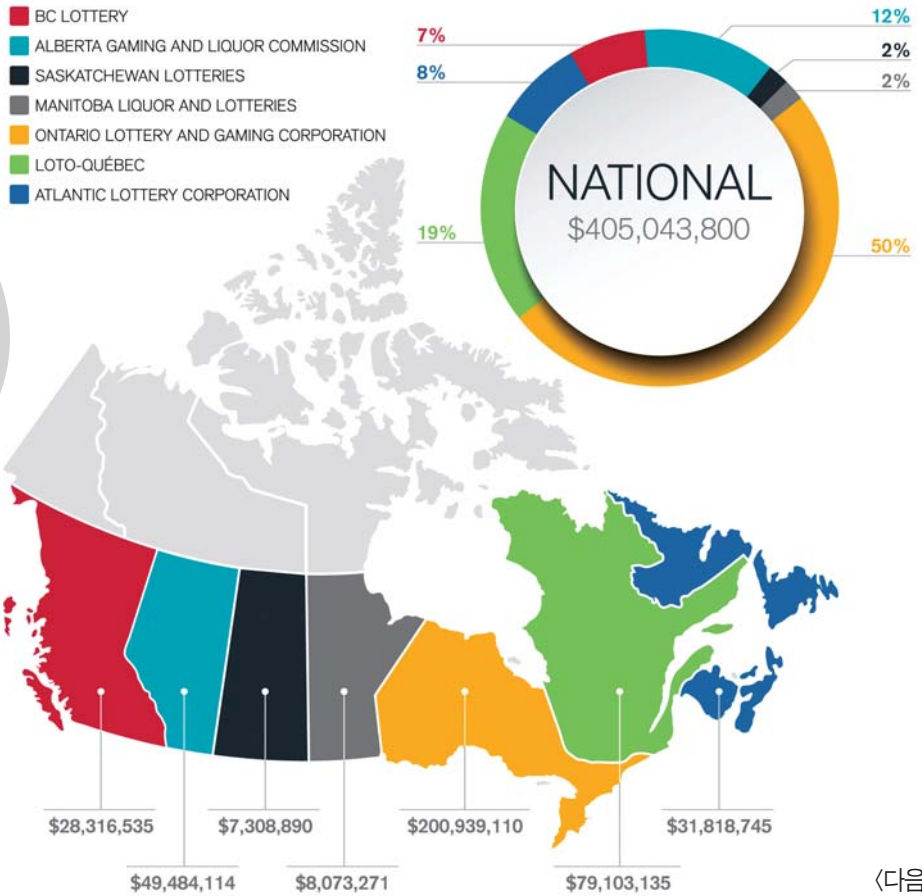
<제744호에 이어>



■ 복권 현황
<주별 매출 현황>



■ 복권 현황
 <복권 커미션 수익 현황>



<다음호에 계속>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윈도매장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Trends

편의점 업주들이 예측해본

2018 트렌드

금년 실험뉴스 첫호에서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편의점 업계의 전망을 소개했다. 본 지면에서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업주들과 손님들이 예상하는 트렌드를 소개한다. 한가지 공통인 점은 푸드서비스 분야에서 건강식품과 음료가 견인차 역할을 하며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미편의점협회(NACS)가 소매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 3명 중 2명은 푸드 서비스의 작년 실적에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한다. 61%의 응답자는 웰빙 아이템 - 과일, 채소, 요거트, 너츠(견과류), 헬쓰바(health bar)등에서 뚜렷한 수익 증가를 경험했다고 한다. 오직 7%만이 푸드 서비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오직 3%만이 웰빙 식품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뉴욕 소재 주유소 병설 편의점 뉴팔츠(New Paltz)를 찾는 손님들은 전보다 고급 품질의 식품과 주전부리 아이템을 더 많이 요구했다고 이 체인사 대표는 전한다. 헬쓰푸드와 드링크 매출이 작년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고 증언하는 캘리포니아의 체인편의점사도 있다. 프로틴(protein)바, 과일, 프로틴 스무디 등이 전체 푸드 품목군 매출을 이끌었으며 생수 - 전통 생수이든 향가미 생수, 혹은 코코넛 생수이든 - 는 종류를 불문하고 매출이 늘었다는 일리노이의 한 편의점 체인사 증언도 있다.

미국에서 구입하는 휘발유의 80%는 편의점병설 주유소를 통한다. 주유소 기름 매출 역시 강세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주의 52%가 연료 매출이 증가했다는 반응인데 감소했다는 응답자 20%에 비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작년 매출 경험에 대한 증언들을 토대로 볼 때 올 한해는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 콤부차(Kombucha) 드링크가 잘 팔릴 것이다.

팬실베니아 베들레헴에 본사를 둔 스퀘어원마켓(Square One Markets Inc)회장은 이 음료를 가정에 배달까지 하겠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



▲ 세계적으로 차(tee)가 뜨면서 콤부차가 캐나다에서도 뜨고 있다. 몬트리얼에서는 큰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한다.

립했을 정도다. 콤부차는 레이디가가, 린제이 로한 등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즐겨 마시는 건강음료로 알려져 있고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디톡스 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콤부차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즐겨 마시던 차다. 홍차, 허브차, 녹차를 우려낸 물에 설탕을 비롯한 각종 박테리아 유익균을 첨가해 만든 발효차의 일종이다. 첨가하는 유익균을 콤부(Kombu) 또는 홍차버섯이라고 하며, 발효할 때 생기는 이물질이 마치 버섯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로운 결제수단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손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가 편의점 업계에 광범위하게 번져 나갈 것이다. 체인 편의점사는 이 방면에 대대적인 교체작업을 벌인다.

● 보다 건강한 간편 식사 대용 메뉴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오레곤주 벤드의 스탱엔고미니마트(Stop & Go Mini Mart)사는 이미 이

분야쪽으로 보강 프로그램을 수립해 밀어부칠 기세이며 입맛따다로운 소비자들의 만족을 자신하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 업주들은 푸드서비스에서 점심 메뉴쪽이 매출 성장의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7% 응답자가 점심메뉴 강세를 꼽았다.) 여기에 더해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낙관론도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 또한 외식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일선 현장의 업주 혹은 소비자들의 반응인데 실제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가처분 소득 증가가 마켓에서 명확히 드러날 직접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강한 낙관은 결국 소매업주들의 강한 낙관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4명 중 3명이 경기 낙관을 전망했으며 최소한 올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확실히 낙관한다고 답했다. 이런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우려되는 대목도 지적했는데 다름아닌 경쟁 격화였다. 채널 밖의 요인에 의한 경쟁은 46%가 우려했으며 채널 내부적인 경쟁, 다시 말해 동종업계 내부적 경쟁에 대한 걱정은 45%의 응답자가 인정했다.

또다른 걱정은 인력난이다. 능력있는 종업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노동 시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업주들은 최근 비전통 노동인력들인 은퇴자, 지체부자유자, 퇴역 군인까지 채용하는 형편이다. 책임자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과제다. 손님과의 교류를 능


숙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인력은 단골만들기의 요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편의점 업주들은 저마다 책임자 찾기에 고심한다.

여기에 끝으로 추가되는 우려가 정부의 갖가지 부담스러운 통제 정책이나 입법이다. 42%의 응답자가 편의점 비즈니스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이를 꼽았다. 이상이 작년 12월 NACS가 소매업주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다. ■

아이샷미디어 관련







광고수익을 위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아이샷미디어(Eye-shot Media)와 체결한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회사측은 5년 연장 계약을 위해 회원들과 재계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부협회 집행부는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또다른 광고마케팅 회사를 접촉해 3개월 내로 사업제휴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은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미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면 큰 무리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발굴한 파트너 회사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니 본부협회의 지침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2018년 3월 프로그램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h4 style="text-align: center;">세이프 영어 클럽</h4> <p>☐ 일시: 3월 7, 14, 21, 28일 (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SSAFE: Spousal Sponsorship Applicants' Friendly Exploration - 영어회화, 캐네디언 문화배우기 *대상: 배우자 초청 이민 또는 예정자 (*1월-3월 12회: 등록비 20불)</p>	<h4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시민권 준비반</h4> <p>☐ 일시: 3월 9일, 16일 (금) 오전 10시 - 오후 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캐나다시민의 권리와 책임 2.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 캐나다 정부, 사법시스템 4. 캐나다 상징, 경제, 지리 5. 문제풀이 <p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등록비 \$20불</p>	<h4 style="text-align: center;">건강정보세미나 6: 암환자 간호</h4> <p>☐ 일시: 3월 17일 (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암이란 무엇인가 2. 항암 화학요법 치료 및 관리 3. 방사선 치료 및 관리 4. 증상 관리 및 통증 조절 5. 가정에서의 환자관리
<h4 style="text-align: center;">무료 법률정보 세미나: 유언과 상속</h4> <p>☐ 일시: 3월 17일 (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타리오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2. 유언장과 재산 상속 3. 신탁 4. 유언 집행인 및 대리인 5. 기타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 	<h4 style="text-align: center;">KCWA 무료 정착 서비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 노스욕: 540 Finch Ave. W., Toronto <p style="text-align: center;">사전 약속 필수: 416 · 340 · 123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div style="text-align: center;">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inancé par :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ONTARIO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ORONTO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D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div> </div>	<h4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h4> <p>☐ 일시: 2018년 3월 5일-4월 27일</p> <p>☐ 장소: KCWA 다운타운 & KCWA 노스욕</p> <p>☐ 소득기준</p> <p>1인가족 \$30,000이하/2인가족 \$40,000이하 3인가족 \$42,500이하/4인가족 \$45,000이하</p> <p>☐ 서비스 제외대상</p> <p>자영업자/연간이자소득 \$1,000이상인 경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100,000이상의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해외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사망자에 대한 세금보고</p> <p style="color: red;">사전예약 필수!</p> <p style="color: red;">등록 및 문의: 416-340-1527 taxhelp@kcwa.net</p>

베이퍼,OTP, Bong, 니코틴 이쑤시개...

라스베가스

담배산업 박람회

이모저모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담배산업 박람회인 TPE(Tobacco Plus Expo)가 성대히 열렸다. 참관인은 대략 4천여 명으로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데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돼 관심이 고조됐다. 캐나다도 연방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오는 7월부터 합법화하는 만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그리고 각종 유사담배(OTP)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업계 전문지 CSP가 전하는 금년 행사 이모저모를 정리 소개한다.

담배 제품군에서 혁신에 대한 열망이 행사 기간 내내 뜨겁게 느껴졌다. 전자담배의 변종들, OTP제품들, 여기에 기호용 마리화나의 다양한 신제

품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신제품이 선보였다.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는 캐나비노이드(cannabinoid) 또는 보통 줄여서 'CBD'라고 부른다.

패널리스트 중 한명인 담배분석가는 이렇게 평했다. "썩은 담배를 비롯한 무연(無煙)담배, 스누스, OTP 는 물론 전자담배, 베이퍼 등에서 뚜렷한 혁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분석가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전자담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학 기술의 발전이 담배 산업에서 그토록 빨리 기반을 구축할 줄 몰랐던 잘못된 판단이었다. 모든 것이 예상밖으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놀라움과 충격을 고백한 것은 비단 이 전문가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패널리스트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트레이드쇼 기간 중 가장 주목받은 몇 가지 사실을 나열해보자. 2017년 3/4분기 기준으로 편의점 베이퍼 매출은 2016년 동기 대비 635%가 증가했다. 놀라운 규모의 증가다. 담배전문업소는 1,492%로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런 통계를 발표하던 전문가는 "개인 소비자들의 소비물 치고는 증가추세가 가히 드라마틱하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매출 신장도 그렇거니와 신제품의 발전상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샌클레멘트에 소재하는 베이퍼 제조사 스페이스 잼쥬스(Space Jam Juice)사가 시연해 보인 새로운 폐쇄형 베이핑 고안물 - 이를 더 버드(The Byrd)라 부르는데 - 이 대표적이다. 소형 USB로 20분 미만의 시간에 100% 충전을 시키는 장치에다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순수 니코틴 블렌드를 흡입할 수 있는 베이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일반 담배 대체물 개발에 대단한 연구와 투자를 해 온 회사인데 이런 회사는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혁신 제품들의 전망이 무조건 밝다고 볼 수는 없다. 칼자루는 식품의약청(FDA)이 쥐고 있고 제조사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권련형 전자담배 iQOS제조사인 필립모리스가 이 제품에 대해 FDA에 인체 피해 감소를 줄였다고 주장했으나 FDA는 이를 일축했다. 당시 자문위원회는 iQOS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화학 성분의 인체 노출은 감소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담배와 관련한 질병의 위험을 줄였다는 과학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참고로 일본, 유럽,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iQOS는 정작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FDA의 불허 결정때문이다. 필립모리스는 난리가 났다. 소위 말하는 '위험저감담배제품'(MRTP ;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신청서를 채차 자료보강해 FDA에 제출했으며 FDA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 전자 담배 업계에서 시장의 장래를 크게 낙관하면서도 항상 한발 물러나며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FDA의 까탈스러운 판단때문임을 필립모리스의 iQOS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계속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담배의 혁신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 기술의 하나가 니코틴 솔트(nicotine salt)라는 것이다. 말이 솔트라서 소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화학적 의미의 솔트일뿐이며 순수 니코

틴 추출 기술로 미국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앞다퉀 회사들이 베이퍼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신기술에 바탕한 베이퍼, 미니 bong, 니코틴 이쑤시개, OTP제품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독창성을 자랑했다.

편의점 채널은 담배말이 페이퍼, 튜브, 랩 등 유사담배 약세사리 매출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 제품군에 대한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매출 증대의 기회를 포착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시가 분야에서도 신제품 기회는 있다. 창의적 맛과 향을 가미한 변종들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커피맛이 나는 시가가 시가 애호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다음으로는 마리화나 소비와 관련해 소형 bong - 일명 클래스 glass - 제품이 마치 유리 공예품 전시장을 방불케할 만큼 색상과 디자인이 다채로웠다. (이들이 실제로는 코케인 소비에도 많이 사용된다고도 함) 콜로라도 덴버에 소개하는 스모커프렌들리(Smoker Friendly International)라는 담배 약세사리 비즈니스 회사 대표인 테리 갤러거씨는 자신의 비즈니스 중 아주 수지맞는 아이템군의 하나가 바로 '소형 bong'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대략 도매가격이 2~10달러 선이 대부분이라면서 이 아이템 취급에 관심있는 업주는 처음부터 고가로 시작하지 말고 중,저가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며 고가품으로 구색을 맞춰가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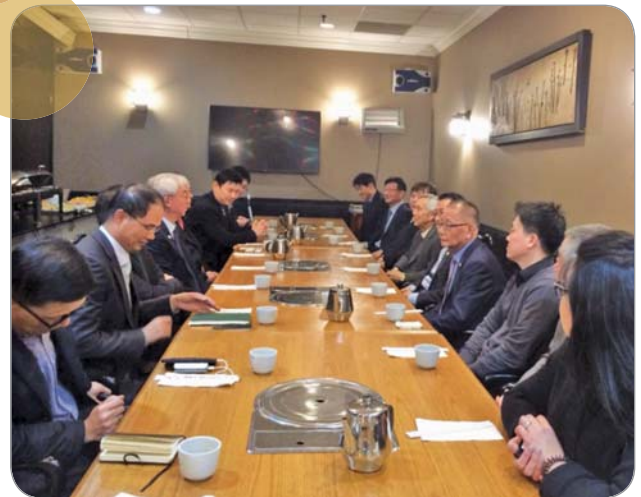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의 소비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의료용인지 기호용인지 경계가 다소 애매한 캐나비노이드 - 일명 CBD제품 - 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기호용에 가깝게 취급



급되고 있는 추세이며 업소에 따라 매년 100% 매출 신장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번 쇼에 출품된 감쪽한 아이디어 상품으로는 식사후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쑤시개가 눈길을 끌었다. 플로리다에 소재하는 한 회사가 니코틴 성분으로 처리한 기발한 이쑤시개여서 흡연가들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싶다. 이밖에도 마치 몽개구름을 뿜어내듯 독창적인 맛으로 블렌딩한 후카, 개의 해를 맞아 각종 개를 그래픽으로 삼은 라이터 등 온갖 아이디어 상품들도 참관인들의 발길을 모았다. ■

총영사관 주최 첫 모임 동포비즈니스 관계자 간담회



토론토 총 영사관이 주최한 동포 사회 비즈니스 단체와 기업 간담회가 지난 2월 13일(화) 저녁 6시부터 한식당 더퍼린 서울관에서 열렸다. 신임 정태인 총영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만찬과 함께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모임은 동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 정 총영사의 의지가 담긴 만남이었다.

평소 이런 저런 행사에서 대면하는 기회는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동포 사회 비즈니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같은 성격의 총영사관 주최 행사는 처음이다. 정 총영사는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교환과 원원의 비즈니스 관계망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와 조합은 신재균 회장과 신영하 운영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갤러리아, 한국식품, 토탈 익스프레스 등 대형 식품체인 대표와 물류 사업 관계자 그리고 무역업체 및 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협회에서는 한상(韓商)대회 참가 모국 중소기업체가 캐나다 수출을 희망할 때 현지 사정을 어느정도 감안한 마케팅 접근 자세를 모국 정부가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다. ■

107년 역사 간직한 특별한 편의점

B.C주 오크베이 커뮤니티의 자부심



▲ 107년 역사의 편의점 Willows Park Grocery .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장 식용 소품 또한 쇼핑을 떠나 한번 둘러보고 싶은 명소로도 손색이 없다.

B.C주의 수도는 밴쿠버 섬 남단 끝자락에 위치한 빅토리아(Victoria)이다. 그리고 빅토리아의 동쪽 해안을 끼고 오크베이(Oak Bay)라는 마을이 있다. 인구 2만 명이 채 안된다. 이 아름답고 유서깊은 마을에 걸맞게 한 세기를 훌쩍 넘겨 한 자리를 지켜온 특별한 편의점 '윌로우스파크그로스리'가 자리잡고 있다. 본 지면에서는 마을의 역사를 지키며 지역 커뮤니티의 자부심이자 상징이 되어 버린 이 특별한 편의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지금의 주인은 작년

가을에 이 업소를 구입한 캐런과 브루스 부부다. 구입 당시 부부는 지역 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이어가기를 원했다. 1911년에 문을 연 후 윌로우스파크그로스리(Willows Park Grocery)는 오크 베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소이자 식품점으로서 중단없이 지속적인 영업을 해온 두번째로 오래된 업소로 기록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지역 공급사들과의 협업 강화를 하지는 것이 최대의 목표” 였다는 캐런씨는 “갓 구운 빵, 신선한 샌드위치, 타키토(taquito), 소시지 롤, 랩 등 모든 간편 푸드서비스 제품들이 지역 공급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말한다. (*타키토는 돌돌 말린 작은 토틸라로 안에 소고기, 닭고기, 치킨 등을 넣어 튀겨낸 바삭바삭한 식감의 멕시코 요리 중 하나임)

어떤 음식들은 그녀가 직접 주방에서 구워내고 있고 때때로 1세기 가까이 그녀의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마마표 요리방식을 구사한 먹거리도 많다. 롤러에서 구워내 따끈한 핫도그 롤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기 메뉴로 점심때가 되면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다.

부부는 영업 방식이나 메뉴 등과 관련해 손님들의 의사를 열심히 경청하고 직접 물어도 보며 이들의 원하는 바를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결과는 매우 좋았음이 바로 증명됐다. 남편 브루스는 “우리 동네 손님들이 지금처럼 계속 편의점으로 남아주기를 원하며 늘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며 인수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 대부분의 이름을 우리는 정확히 외우고 있다.”

캐런씨는 22년간 부동산 중개사를 했던 사람이다. 삶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 중개사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부부가 커피숍을 운영해볼까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이 업소를 알게 됐고 커피는 이 편의점을 인수해 결들이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피 재료는 ‘널맥도날드 블랙베어 아티즌 커피’ (Neil McDonald’s Black Bear Artisan Coffee)인데 프리미엄급 원두를 볶아 공급하는 지역 업소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다. 빅토리아 지역 전체에서 이 커피를 사용하는 곳은 캐런 부부네 가게를 포함해 딱 두군데라고 한다. 빵, 번즈, 각종 패스츄리 제품은 밴쿠버 섬에



▲ 100년 넘는 가게 윌로우스파크그로스리를 인수한 직후였던 2017년 10월 23일자 빅토리아 지역 매체 'Victoria News'에 화제의 부부를 소개하는 기사가 위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서 명망있는 장인 기술로 구워내는 두 베이커리인 포트피노(Portofino)와 식스마일(Six Mile)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업소 안팎에 작은 테이블과 몇개의 의자를 놓은 공간이 있어서 손님들은 먹거리를 사가지고 잠시 앉아 쉬면서 음식을 즐기거나 차한잔을 나누며 대화를 하기도 한다.

안락함과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부는 벽이나 선반 등을 목재와 벽돌 꾸몄으며 빈티지 저울, 50년대 코카콜라 디스펜서, 1949년제 모토장착 자전거 등을 소품으로 요소소소에 배치해 고풍스러운 분위기 연출에 보탬을 주고 있다. 남편 브루스는 “가게를 하나 더 차리면 좋겠다. 이런 소품들 말고도 빈티지 물건들이 창고 하나 가득하다”고 함박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이들이 이 동네의 성원이 된 후로 동네 편의점으로 계속 명성을 유지하며 성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실제로 업소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손님 트래픽 증대에 크게 도움을 줬다. 사실 이런 분위기의 가게는 물건을 사고 말고를 떠나 눈요기감으로도 한번쯤 둘러보고 싶은 장소다. 입소문을 들었는지 종종 10여명 이상의 손님들이 장식용 골동품 감상을 목적으로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다. 부부는 이들이 설사 물건을 사지 않고 둘러보고만 나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다. 언젠가는 쇼핑을 위해 다시 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변한 것은 골동품 장식만이 아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5개의 냉장고는 절전형의 모던한 대형 냉장고 하나로 교체했다. 이처럼 간접비를 줄여 얻은 이익은 손님에게 돌려준다. 다름아닌 가격 인하정책이다.

캐런씨 업소를 찾는 일부 고객들은 이전부터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냐고 묻고는 한다. 그럴 때 말을 맞추다 보면 캐런이 과거에 활동했거나 참가했던 이벤트에서 팀을 이뤘거나 호흡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고는 너무 반가워한다. 이런 사소한 공유의 경험들도 업소 트래픽 증대에 보이지 않는 보탬이 되기도 한다.

남편 브루스는 사람사귀는 것을 즐기는 사교적 스타일이다. 친근감이 넘치는 개성 또한 편의점 운영에 큰 자산이 된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같이 느껴진다. 아주 좋은 사교 경험이며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성격 또한 편의점 운영에 나름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브루스씨를 통해 공감할 수 있겠다.

부부는 향후 업소 운영에 있어 지역 특산품을 더 많이 취급할 구상이다. 업소 밖이든 안이든 별도의 공간을 배정해 지역 특산물만 진열하는 코너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름같은 경우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인 아이템이 될 것이다. “하나씩 지역산 아이템들을 보태면서 지역과의 유대망을 넓히고 심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이 제품들은 품질도 고급스럽고 손님 취향에도 맞아 떨어진다. 자기 고향의 물건에 대한 애정같은 것이다.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가 계속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부부가 품고 있는 소신이다.

평일이면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한다. 전통적인 24시간 영업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편의점치고는 정말 짧은 시간을 운영한다. 그래서인지 부부 둘만 일을 하며 별도의 종업원은 두지 않고 있다. 행여 바쁜 경우에는 가족 중 한명 정도가 더 투입되는 정도다. ■

사푸토 우유 가격 인상

Saputo 해마다 이무렵 사푸토는 우유가격을 인상해왔으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체적으로 리터 당 2~3센트가 올랐다. 인상 폭은 연간 인플레이션(annual CPI) 즉, 소비자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

에 근거한 범위 안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CPI는 캐나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데 1.4%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상가격 적용은 3월 4일부터이며 회원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 중심으로 인상폭을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제품 구분	용량	현재 가격	인상폭(cent)	인상 가격
NLS 1L 1% MILK - CTN	1L	2.01	0.02	2.03
NLS 2L 1% MILK - CTN	2L	3.98	0.03	4.01
NLS 4L 1% MILK - BAG	4L	4.94	0.06	5.00
NLS 1L 2% MILK - CTN	1L	2.03	0.02	2.05
NLS 237ML 2% MILK - CTN	237ml	0.62	0.01	0.63
NLS 2L 2% MILK - CTN	2L	3.98	0.03	4.01
NLS 473ML 2% MILK - CTN	473ml	1.15	0.01	1.16
NLS 4L 2% MILK - BAG	4L	4.94	0.06	5.00
NLS 1L CHOC MILK - CTN	1L	2.22	0.02	2.24
NLS 237ML CHOC MILK - CTN	237ml	0.63	0.01	0.64

제품 구분	용량	현재 가격	인상폭(cent)	인상 가격
NLS 2L CHOC MILK - CTN	2L	4.39	0.03	4.42
NLS 473ML CHOC MILK - CTN	473ml	1.22	0.01	1.23
NLS 4L CHOCOLATE MILK - BAG	4L	7.37	0.06	7.43
NLS 1L HOMO MILK - CTN	1L	2.07	0.02	2.09
NLS 2L HOMO MILK - CTN	2L	4.08	0.03	4.11
NLS 473ML HOMO MILK - CTN	473ml	1.15	0.01	1.16
NLS 4L HOMO MILK - BAG	4L	5.46	0.06	5.52
NLS 1L SKIM MILK - CTN	1L	2.01	0.02	2.03
NLS 2L SKIM MILK - CTN	2L	3.98	0.03	4.01
NLS 4L SKIM MILK - BAG	4L	4.94	0.06	5.00

*CTN : Carton

특위 구성은 지역적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배려가 엿보인다. 위원장인 본부협회장을 포함해 2명이 남서부 소속이고 협회 이사장이 동북부 소속이다. 조합 운영이사장을 포함해 4명은 GTA 소속으로 이중 한 명은 지구 협회장이고 다른 한명은 본부협회 선출 이사를 맡고 있다. 7명의 구성원이 3개 지구협에 걸쳐 나름 고루 포진돼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협회 리더의 위치에 있다.

특위 출범에 앞서 신 회장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이해 관계에 좌우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역적 안배를 했으며 그래야 결정 사항에 대해 근거없는 루머가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고 특위 구성의 의미를 밝혔다. 신 회장은 또, “항간에 모바일 매각 대금을 전용, 혹은 유용할 것이라는 다분히 모략적인 소문이 유포되는 것을 전해 듣고 특위를 발족하기로 한 것이 아주 잘됐다 싶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매각대금은 430만 달러이며 이 중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변호사 수입료를 제외한 전 금액이 모두 거래 은행 별도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용도는 신규 건물 매입 조건으로만 인출이 가능토록 했고 서명권자도 3명이나 설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이나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전용에 대한 우려는 지난 2월 6일 열렸던 지구협회장 회의에서 일부 회장들로부터 흘러 나왔다. “건물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 대금을 사용할까 행여라도 우려된다”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신 회장과 차동훈 전무가 반복해서 역설했다.

신 회장은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낭설이 돌지 않도록 고심한 끝에 협회와 조합 쌍방의 이해관계는 물론 협회 회원 전체를 위한 지역적 이해관계 등이 고루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특위’ 구성을 결심한 것이다. 이제 3월 초부터 특위가 가동되면 신규건물 매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면에 이어〉 美, 담배구입 연령 21세 상향 붓물

성년자로 담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는 점을 들며 크게 저항하는 분위기가. 공화당 소속 샘 맥켄 의원은 이 법안이 21세 미만의 연령대가 담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는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법은 규정을 어긴 21세 미만의 연령이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25달러 벌금을 내도록 하고는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다른 주로 건너가 담배를 구입하기 용이한 지역에 사는 미성년 흡연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주마다 담배구입 허용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손님을 타주에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는 편의점 업주들도 많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주 차원의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시카고를 비롯한 14개 시, 군 지자체들이 21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물론 시, 군 단위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담배 구입 최저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있어 캐나다도 이를 모방하지 않을까 은근히 염려된다. 편의점에 불리한 정책은 워낙 발빠르게 타국을 따라해왔기 때문이다. ■

3월 8일부터 “특별위원회” 가동 신규건물 매입 본 궤도 올라

지난 해 12월 12일자로 모바일 건물의 소유권이 매입자측으로 이전됨에 따라 매각 계약 이행은 완성이 됐다. 그와 동시에 조합 이전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소유주로부터 8개월의 매각임차 (lease-back)를 얻어 조합 영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본부협회는 적임지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후보 건물을 물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라 부동산 거래가 뜸하기 때문에 날이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기초 조사에만 몰두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건물 매입 추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앞서 본부협회는 집행부의 구상에 따라 ‘신규건물매입추진특별위원회’(가칭 ; 이하 ‘특위’)를 구성기로 했다.

특위는 모두 7명으로 전용을 꾸리게 되는데 위원장은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이 맡고 위원 6명은 본부 협회 이사장, 협동조합 운영이사장, 광역토론토 회원 3명, 남서부 지구협회장 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위는 그 첫모임을 오는 3월 8일(목) 협회 회의실에서 가지게 된다. 상건례 겸 향후 매입 추진 방향과 역할 분담 등을 논하기 위함이다.

〈특위 위원〉 *소속 지구협

-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특위 위원장 *나이가가라)
- 이성호 (본부협회 이사장 *듀람)
- 신영하 (본부협회 부이사장/협동조합 운영이사장 *필)
- 이두승 (이토비코 지구협회장)
- 권순천 (워터루 지구협회장)
- 김근호 (본부협회 직선 이사 *스카보로)
- 신동성 (토론토 이스트 회원)



2018년 3월 7일

토론토 Convenience U CARWACS Show에서 열리는
OKBA 회원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무료

OLG와의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프로그램 일정

2018년 3월 7일 (수)

오전 11:00 ~ 11:15

OKBA 등록 및 배지 픽업

오전 11:15 ~ 오후 1:30

OLG 프리젠테이션 및 한식 뷔페 식사 제공

오후 1:30 ~ 5:00

트레이드쇼 관람

Prize Draw

참석하시는 회원님 한
분께 아이폰 미니를
증정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www.convenienceu.ca/OKBA

등록 마감일: 2018년 3월 2일

본 이벤트는 19세 이상 회원님만 참여 가능합니다.

童心 파괴 게임 『조선 쌍륙놀이』

대망의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려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4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화합의 제전을 펼쳤다. 초절정 하이테크에 기반한 성대한 개막식에 남북 단일팀 구성, 북의 고위급 대표단 방한으로 인한 남북 해빙무드 조성 등 지구촌 스포츠 대전을 계기로 의미깊은 사건들이 한반도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어떻게 하나,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 어쩌나 좌불안석하고 마치 뭐가 잘못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준 일부 불순세력도 있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기레기 언론들이 쏟아낸 망언, 가짜뉴스도 많았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에 더해 미국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저지른 개막식 행사 전후한 외교 결례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미국이야 대북 강경기조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아베의 망언과 작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진상짓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 깊고 넘어가자. 개막식 와중에 잠시 짬을 낸 한.일 정상간의 만남에서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라”는 주문은 도저히 할 말이 아니었다. 남이사 연합훈련을 하든 말든 지놈이 뭔데 이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요청을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은 “그건 우리하고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간섭할 말이 아니지. 좀 불쾌하네” 라는 당연한 반응을 보였다.



▲ 남북 단일팀이 입장하자 각국 정상들이 모두 기립해 축하하고 박수를 치는데 펜스와 아베 둘은 건방지게 쳐 앉았다. 일어나려다가 펜스를 보고 도로 주저앉은 미국의 푸들 ‘아~베 신조’ 싸가지하고는~

그러더니 미국 부통령하고 짝짜꿍이 돼 찰싹 붙어 줄줄 쫓아다니다가 만찬장에 늦게 기어들어온 것은 또 무슨 외교적 결례인가. 기다리다 못한 대



통령이 환영사를 했고 환영사가 끝나니까 그때서야 만찬장에 펜스하고 나타났다. 개막식 때는 개최국인 한국과 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모든 초대받은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인간의 매너라는 것은 가히 쓰레기 수준이었지만 아베는 일어나 박수치려다가 펜스가 안 일어나니까 도로 주저앉은 모습이였다.

미국의 뜯만이라도 이런 뜯만이가 없었다.

올해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쓴소리 글은 자제하려했다만 아베가 보여준 무식하고 뻔뻔한 싸가지를 대하고 보니 다시 일본의 죄상을 한편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 이하 이번호 교양상식에서는 1911년부터 일본이 시작한 ‘조선쌍륙놀이’(朝鮮雙六)라는 기괴한 짓거리를 폭로코자 한다.

1910년 조선을 강제로 집어삼킨 일본은 이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참으로 비열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이 다음아닌 ‘조선쌍륙놀이’이다. 원래 조선 병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들의 날조는 오래전부터 획책되어왔었고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순진무구한 자기나라 이동들에게까지 세뇌교육을 시키기 위한 술책을 동원했으니 이제부터 그 진상을 살펴보겠다. 조선을 강제병탄한 바로 이듬해인 1911년 신년을 맞아 교토(京都)의 히노데신문(日出新聞)에서 부록으로 사진에서 보듯 ‘일출신문조선쌍륙’(日出新聞朝鮮雙六)이라는 것을 발행했다. 어른들이 받아보는 신문에 부록으로 집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주사위놀이판을 끼워 보낸 것이다. 쌍륙은 주사위 2개를 가지고 편을 먹던 일대일로 하든 승부를 가리는 말판놀이로 보드게임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판의 그림 내용이 소름이 끼친다. 조선의 강제 합병 과정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주사위 놀이로 말판 이동경로를 만들었으니 동심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어른들끼리의 전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남의 나라를 강제로 복속시키는 것은 절대로 가르칠 일이 아니건만 일본은 동심마저 이용해 어린 가슴과 머리에 침략의 아욕을 불어넣는데 골몰했다. 꿈나무들의 인간성 상실과 윤리의식 마비는 아랑곳없이 저지른 반인륜의 막장이었다.

말판의 그림을 하나씩 뜯어보자. 좌우 각각 8장씩 16장의 그림이 있고 중앙의 하단 그림이 장승그림으로 ‘출발’이다. 그리고 중앙의 가운데에 3장의 그림이 있고 중앙 상단에 그림이 한점 있다. 총 21점이다. 중앙 상단의 그림은 목적지 ‘도착’으로 먼저 이 도착(일본어로는 ‘오르기’ 上り라는 의미)지점에 이른 쪽이 게임을 이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도착 그림은 초

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한일병탄의 조 칙(併合詔勅)을 읽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일장기가 바탕으로 깔려 있다. 그림의 상단에는 '만세'라는 글자가 보인다. 마침내 조선을 먹었으니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세라고 써놓은 것이다. 아이들은 혹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이 말판을 방바닥에 깔아놓고 주사위놀이를 하며 조선을 먼저 먹었다고 만세를 부르고 희희낙락했으리라... 상상만 해도 기분 참 더러워진다. 21장의 그림은 당시 일본에서 이름 꽤나 떨치는 21명의 화가가 한 장씩 맡아서 그렸다고 한다. 안그래도 나라를 빼앗긴 수치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우리 조상들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아이들 주사위놀이 말판 그림에서까지 능멸을 당하는 꼴이다. 가슴 아프지만 한국의 역사 전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림의 몇 장면을 풀이해보자.

왜에 조공바치는 신라? 그리고 임진왜란 귀무덤



전체 말판 그림의 좌측 상단 그림 부분이다. 왼쪽은 신라의 공선(貢船) 즉, 상전의 나라에 바칠 조공물을 실은 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상전은 바로 일본(倭)이다. 일본이 8세기에 발간한 허무맹랑하게 조작된 역사서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대목인데 "신라가 왜에 조공선 80척을 보냈다"는 말갈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다. 오른쪽 그림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거둔 전과(戰果)를 자랑하는 내용이며 '이총(耳塚; 귀무덤)이라고 써여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 출정 때 조선 병사와 민간인을 죽인 후 귀를 잘라 보내라고 지시했던 것인데 일종의 전리품이자 전과 증거품을 수집하려는 의도였다. 원래 코무덤(鼻塚)이다. 수만개의 코를 잘라 일본에 보내 모은 것을 도요토미 신사 앞에 묻고 '코' 대신 '귀 무덤'이라고 칭했다는데 코든 귀든 무슨 상관인가, 잔인함의 극치인 것을. 그런데 어린이 주사위 놀이 말판 그림에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써먹고 있으니 동심 파괴가 아니면 무엇일까. 당시 일본 어린이들은 이 놀이를 하며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는 어떤 반응이었을지 심히 궁금하다.

담배와 술에 찌든 게으른 조선?



전체 말판 그림의 우측 하단 그림 부분을 보자. 앞에서 소개했던 좌측 상단 그림은 역사적으로 이미 고대부터 한반도의 나라들이 일본에 조공을 바치며 조아렸다는 역사 우월의식을 날조한

것이라면 우측 하단의 이 그림은 조선인이 게으르고 야만적이라는 열등감 조장의 내용이다. 왼쪽은 긴 담뱃대(長煙管)를 물고 담배나 피우며 하릴없이 시간이나 때우는 끈대 이미지, 오른쪽은 술에서 막 깨어난(初日醒 초목성)주정뱅이 모습이다. 조선을 묘사하는 그림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근대적 모습의 문명국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 전파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 술주정뱅이의 외관이 변발을 한 중국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중국인의 이미지까지 중첩시켜 두 아시아 문명 국가를 싸잡아 욕보이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일본의 지배는 역사적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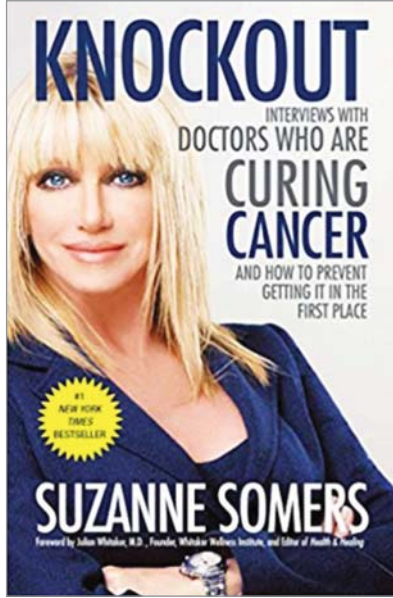
전체 그림 중앙의 가운데와 상단 그림 부분을 보자. 원안의 그림은 일본이 신주모시듯 하는 천황계보 중 신공황후(神功皇后)이다. 천황의 어머니이면서 섭정을 하며 군단을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 가 항구에서 신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는 전설따라 삼천리같은 여인이다. 앞서 말한 구라로 짐철된 '일본서기'에 나오는 인물이며 대략 4세기 초엽 인물인지 귀신인지 아리송한 존재다. 어쨌거나 저들의 역사책에는 이 여인이 신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에 진출해 삼한을 정벌했다는 것인데 그림은 바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오른쪽 그림은 관백수길(關白秀吉)이라고 써여 있는데 관백은 최고 관직명이며 수길은 풍신수길의 이름으로 둘을 합친 것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이 역시 조선을 한때나마 정벌한 인물로 일본 역사 위인전의 단골메뉴다. 왼 쪽은 춘묘공(春畝公)이라고 적혀 있다. 이토 히로부미의 시호(諡號)다. 역시 조선 정벌의 밑자락을 깔았던 일본의 위인 중 한명이다. 스토리를 재구성해보면 한반도는 고대부터 신공황후의 지배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벌,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이토 통감의 조선 통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운명이 일본의 지배와 통치를 받도록 숙명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마침내 말판의 마지막 그림인 상단 부분에서 보듯 조선 '병합 조칙' 을 읽고 있는 초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의 그림으로 쌍륙놀이 한판이 완성된다. 조선 정복의 오랜 숙원이 완성됐음을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주입시키는 섬뜩한 제국주의의 극악한 단면이다.

이 못된 게임 도구인 '조선쌍륙'놀이 이후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그림으로 묘사한 다양한 쌍륙을 제작해 일본 어린이들의 놀이감으로 보급시켜 대외침략의 정당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세뇌교육에 몰입했었다.

글을 맺자. 아베의 안하무인격인 버르장머리와 일본 극우들이 설쳐대는 모습,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장단을 맞추는 한국 극우들의 끊임없는 준동을 대하노라면 한국이 제2의 '조선쌍륙'놀이의 유희감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감과 함께 생각할수록 괴씸하고 불쾌한 주사위놀이가 아닐 수 없다. ■

Sunny의 건강 이야기(7)

암(癌) - 1



암이라는 매우 무거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책 한권을 소개한다. 2009년 미국에서 출판된 "Knockout: Interviews with doctors who are curing cancer"라는 책으로 한동안 뉴욕타임즈 매거진 베스트셀러로도 소개될 정도였다.

내용은 7-80년대 유명했던 미국 여배우 수잔 소머즈(Suzanne Somers)가 스스로 암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정통의학에 의지하지 않고 대체의학 혹은 통합의학을 통해 암을 완치하면서 기존학과는 다른 암치료로 성공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을 인터뷰한 책이다. 증상완화 수준의 기존의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완치에 성공한 의사들의 증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에서 "암을 치료하는 미국의 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절찬리에 판매중이라고 한다. 본 지면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마치 사형선고라도 받은 듯한 암이라는 질환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겪어야 할 두려움, 공포, 좌절감, 무력감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어도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하는데 있다. 암은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이해하고 믿고 싸울 때 완치의 길도 보이는 것이고,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선, 책 저자의 서문에서 몇 단원을 소개한다. 『몇 년전 New York Times 잡지는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제목의 심층기사를 올리면서, 인구증가 수와 연령대를 감안한 비교 분석에서 195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암 사망률의 하락폭은 불과 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다른 그 어떤 과학기술이 같은 55년 기간동안 이토록 처참한 성과를 냈을까? 1950년대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의술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비용은 엄청난 반면 환자의 건강상태를 심하게 훼손하면서 짧은 기간에 불과한 생명연장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 책은 환자 개개인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시한다. 화학적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환자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통의학을 거부하고 대체 요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우선 정통의학적 치료를 받고 실패한 후 대체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문제는 이럴 경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만약 암 진단을 받는다면 환자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두 차례나 이를 겪은 바 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대체요법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결정에 불과하다. 내가 독자 여러분의 결정까지 대신 해줄 수는 없다. 다만, 전통요법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 놀라운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책 속의 의사들 중 일부는 철저한 대체의학을 추구하고, 어떤 의사들은 통합의학을 추구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광장히 성공적으로 암을 치료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복한 일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암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암이라는 질병을 갖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암은 관리할 수 있다. 힘들게 견뎌야 하는 파괴적인 암 치료를 통해 피폐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이 완치될 수 있다.」(수잔 소머즈)

이 책을 추천한 저명한 암전문 의학박사 줄리안 위태커(Julian Whitaker)의 말도 조금 인용한다. 『암 치료에 관한 현대의학의 접근방식은 매우 파괴적이다. 그릇된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출발한 '암 산업'이 지난 백년간 이어오고 있다. "암 세포는 없애야만 한다"는 패러다임은 1800년대 말 최초의 유방암 절제 수술을 집도한 윌리엄 홀스테드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창안한 수술 요법의 효과와 정당성을 증명할 추가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세포를 우리 몸에서 잘라내야만 한다"는 가정은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치료법들 -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

은 모두 암세포를 즉각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접근방법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항암제의 독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머지않아 암은 사망원인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조 달러가 투입된 기존의 치료법들은 영구존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거쳐간 그릇된 패러다임이 그러했듯이 이 또한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패러다임이 대체할 것인가?

모든 암종류와 위치에 관계없이 암세포는 통제불능의 무한하고 빠른 세포분열이 특징이다. 따라서 암 세포의 분열만 멈출 수 있다면 암은 스스로 사라질 수 있다. 인간의 몸이 이를 가능케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의사들의 치료가 성공적인 이유는 하나같이 암세포의 통제불능성 세포분열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암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상태의 호전 정도가 아니라 완치를 의미한다. 암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Whitaker Wellness Institute 의료 원장 줄리안 위태커 의학 박사)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다. 캐나다의 맥길 암 센터(McGill Cancer Center)의 암 전문의 1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문의들의 75%가 자기 자신 혹은 가족들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 의사들도 아니고, 암 치료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암전문의들 4명 중 3명이 항암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그들은 항암치료(Chemotherapy)가 수많은 종류의 암에는 효과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가족이 불필요하게 겪어야 하는 고통은 물론, 온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물론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어떤 종류의 암은 항암치료가 절실하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치료없이 이루어지는 파괴행위는 의미가 없다.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중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대행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71 - 3539
- **Waterloo**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권순천 (519) 684 - 7444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김병욱 (905) 433 - 134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장승원 (705) 639 - 1312
- **Owen Sound**
회장 위재광 (519) 794 - 2626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OKBA 온타리오 한인사업인협회
Ontario Korean Business's Association

공지사항 알림뉴스 기사판 알림뉴스PDF 보기 KBA활동조합 스페셜 KBA활동조합 공동구매

AVANTIS
POS/BANK E2 DUAL, Monitor 12.1"
Printer (A7)
CASH - DRAWER(Coin Separator)
MONITOR/Scanner
416-880-9734
\$1,500
Language: C730
Security CAMERA
\$30

2017년
Nestle와 함께하세요

FritoLay Special
2017.2.26~3.25

Weston Bakeries 배달서비스
South Cove 허급신청서

Merchant Services
Preferred Pricing Program
OKBA 제휴 카드 결제 서비스

YENO 자영업자/소상공인
OKBA Exclusive Deal

Moneris 제휴사만

TouchCash Inc.
ATM & POS
1-866-391-3950

사업인협회 단체보험
Walker Roberts Ins.Brokers Inc.
오종천(416)602-7083
cjh@walkerrobins.com

프로 캐쉬레지스터
바코드 스캐너 전문
416.804.4075

Authorized Zippo Dealer
왕도메서
416.681.6864

이민유
합동법률그룹
416.739.8887
647.891.8867

Tofu's Authentic Korean Restaurant
1316 Dundas St. E., Mississauga
Tel. 647-454-8000

OKBA PROGRAM STORE POS SYSTEM
OKBA 프로그램스토어 포스시스템

2017 Convenience II & CARWACS Nestle Ice Cream Exp.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합동법률그룹 알림뉴스 공지사항 알림뉴스 제휴사만 제휴사만

이토비코 지구협회 정기총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이토비코 지구협회 정기총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2017년 OKBA 후원회

합회소개 협회조직 / 협회정관 및 내규 / 회원가입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지구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 1C2 대표전화: (416) 789-7891 / 팩스번호: (416) 789-7834
Copyright © okba.net All Rights Reserved.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DIRECTORY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모바일지점 ----- (416) 285-9591
 1 Mobile Drive, Toronto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e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공급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866) 319-7450
 1 Solution ----- (905) 962-1999

■ 잡지 공급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905) 764-8061 (ex 254)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 느껴지는 ...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8.2.25~2018.3.24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2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ys XL **2/\$6**



All Single Serve **2/\$3**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